

될 수 있는 한 예시를 많이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  
6평에서 몇 문제만 더 제가 해설해보았습니다 ^^)/

(가)

문학적 시간은 작가의 체험이나 의식에 따라 자연적 시간을 의도적으로 재구성하여 미적 효과를 드러낸다. / 삶의 과정과 시간의 흐름을 담은 사건은 주로 과거형으로, 대상의 특징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는 이미지는 주로 현재형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과거형과 현재형의 적용은 작품 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의 사건이나 동작의 변화를 실감나게 드러내기 위해 현재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미지 묘사를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도록 과거형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A] 특히 서정시는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간의 모호성이 두드러진다. 즉 서정시는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고 시적 현재로 통합하는 시간의 의도적 변형을 드러내는 것이다.

실제 제 시험지에 표시된걸 그대로 따와서 표시해봤습니다  
솔직히 뭔 개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구분되는 것들이 정확히 어떻게 구분되고, 서정시라는 것은 특히나 중요한 구석이 있구나. 하시면 됩니다.

(나)

하늘로 날을 듯이 길게 뽑은 부연\* 끝 풍경이 운다  
처마 끝 곱게 늘이운 주렴에 반월(半月)이 숨어  
아른아른 봄밤이 ㉠ 두견이 소리처럼 깊어 가는 밤  
㉡ 곱아라 곱아라 진정 아름다운지고  
파르란 구슬빛 바탕에 자춧빛 호장\*을 받친 호장저고리  
호장저고리 하얀 동정이 환하니 밝도소이다  
살살이 퍼져나린 꿈은 선이 스스로 돌아 곡선을 이루는 곳  
열두 폭 기인 치마가 사르르 물결을 친다  
초마\* 끝에 곱게 감춘 운혜(雲鞋) 당혜(唐鞋)  
㉢ 발자취 소리도 없이 대청을 건너 살머시 문을 열고  
그대는 어느 나라의 고전(古典)을 말하는 한 마리 호접(蝴蝶)

호접인 양 사뭇이 춤을 추라 아미(蛾眉)를 숙이고……  
나는 ㉣ 이 밤에 옛날에 살아 눈 감고 거문곶출 골라 보리니  
㉤ 가는 버들인 양 가락에 맞추어 흰 손을 흔들거지이다  
조지훈, 『고풍 의상』 -

너무 추상적이죠..?

얻어갈 것만 얻어가시면 됩니다.

시를 읽으실 때의 목적은 그저 '전체적인 흐름은 느끼겠다' 라는 각오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나) 시를 다 읽고 나서, 뭔가 슬픈 분위기에서 화자가 춤을 추고있네? 라는 느낌이 들었따?

수능 문학을 풀 때 시의 독해에서 문제될 건 없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어머님,  
제 예닐곱 살 적 겨울은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별거숭이 유리창 깨질 듯 울어 대던 외풍 탓으로  
한없이 추웠지요, 밤마다 나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 가래기 사이로 시린 발을 밀어 넣고  
그 가슴팍에 벌레처럼 파고들어 얼굴을 묻은 채  
겨우 잠이 들곤 했었지요.

[B] 요즈음도 추운 밤이면  
곁에서 잠든 아이들 이불깃을 덮어 주며  
늘 그런 추억으로 마음이 아프고,  
나를 품어 주던 그 가슴이 이제는 한 줌 땀가루로 식아  
붉은 흙에 자취 없이 뒤섞여 있음을 생각하면  
옛날처럼 나는 다시 아버지 곁에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오늘은 영하(零下)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문득  
나를 품에 안고 추위를 막아 주던  
예닐곱 살 적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化身)해 인상을 보았습니다.  
품 안에 부드럽고 어린 물살은 무사히 흘러  
바다로 가라고,  
짙 짙 얼어붙은 잔등으로 흑한을 막으며  
하얗게 얼음으로 얼드려 있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 이수익, 『결빙(結氷)의 아버지』 -

이것도 그냥, 아버지 곁에 눕고싶다.. 아버지 보고싶다 아부지!!!!!!!!!!!!!!!!!!!!!!!!!!!!1111  
이정도면 읽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그럼 남은건?

문제에서 풀어보는 시어/시구의 의미에 대하여 지금 파악한 전체적인 흐름과 문제에서 묻는 시어/시구의 앞뒤 내용흐름을 읽어주시고, 선지를 판단해주시면 되는겁니다.

27. [A]를 중심으로 (다)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화자가 '아버지'와 겪었던 유년 시절을 '어머님'에게 들려주는 시상 전개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이어 준다.
- ②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이라는 현재 위치에서 화자가 과거의 이야기를 전해 주는 방식으로 시적 현재의 의미를 생성해 낸다.
- ③ '옛날처럼 나는'에서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는 시적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 ④ '에널곰 살 적 그 겨울밤'을 '영하의 한강교를 지나면서' 때 울리는 데서 과거와 현재의 통합이 드러난다.
- ⑤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했다고 표현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분리하지 않는 시간의 모호성을 드러낸다.

1번

사실적 판단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 화자가 '아버지'와 겪었던 유년 시절을 '어머님'에게 들려주는 시상 전개 방식 >

입니다. 시 보시면 맞죠?

해석적 판단이 적용되어야 하는 부분은

< 화자가 '아버지'와 겪었던 유년 시절을 '어머님'에게 들려주는 시상 전개 방식으로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이어준다. >

의 밑줄쳐진 부분입니다.

여기서, 머리를 과하게 굴리시면 안됩니다!!!!!!

문학이라는 파트는 기본적으로, 추상적인 파트이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몽똥그림을 항상 수반해주셔야 합니다.

근거는 명확하되, 판단은 몽똥그려서.

추상적인 파트라 그런지 전달하게 되는것도 너무 추상적이게 되네요ㅎ



과거의 이야기를 현재 전달하고있으니 뭐 이어준다고 봐줄수 있겠지?

정도로 넘어가주시면 됩니다.

연결고리가 그냥 퍼즐맞추듯 딱딱 맞죠? 내용흐름상 문제될 것 하나 없는 해석이구요,

2번

사실적 판단에 해당하는 부분은

<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이라는 현재 위치에서 화자가 과거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방식 >

입니다.

거슬러 올라가 살펴봅시다.

아니죠?

'목조 적산 가옥 이층 다다미방'의 앞뒤 맥락을 봐주시면, 옛날 화자가 있던 위치입니다.

고로 현재위치라는 판단은 잘못됐습니다. 고로 2번 오답 체크 딱!

3번

사실적 판단에 해당하는 부분은

<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는 시적 상황' >입니다.

여기서도, 너무 활자 하나하나에 집중해서 살살이 분석하지 마시고

'지금' '과거'를 떠올리고 있으니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이 공존해있다고 봐줄 수 있겠다.

라며 개연성 넘치지만, 근거는 확실히 잡아주시면서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옛날처럼 나는' 에는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들이 공존해 있는 시적 상황' 이라고 봐줄수 있는 여지가 매우 다분하기 때문에, 옳다고 봐줄 수 있겠네요.

'옛날처럼 나는' 의 앞쪽 내용흐름을 봐주시면 과거를 떠올리고 있으니까용.

4번

간단하게 할게요. 현재 과거를 떠올리고 있으니 과거와 현재의 통합이라고 봐줄 수 있지  
o

5번

사실적 판단에 해당하는 부분은

<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했다고 표현함으로써 >

시를 읽으면 그냥 맞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적 판단은, 저러한 부분이 시간의 모호성을 드러낸다. 라고 서술된 부분입니다.

여기서 (가)를 슬쩍 봐주시면,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이 공존해있다면 시간의 모호성이 존재한답니다.

고로, '그 겨울밤의 아버지'가 '이승의 물로 화신'했다고 표현한 부분은 완전완전 현재의 순간에 과거의 경험이 공존한 상황이니깐, 참입니다.

28.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를 통하여 리듬감에 변화를 주고 있다.
- ② 전통적인 소재와 에스러운 말투로 고전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시적 상황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위를 자연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 ④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의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가 충돌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2,3,4번은 패스하겠습니다. 혹여나 질문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주시길!

여기서 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문학 기출을 풀면서 얻어가야 할 부분 중 하나는 바로 1번 선지같은 부분입니다.

시어 변형 -> 리듬감 변화.

이건 그냥 고민할 필요도 없이 맞는 해석입니다.

또 다른 예시는

감각적 형상화 -> 시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한다, 갈등을 빚음 -> 시적긴장감을 고조시킨다..

등등 있겠습니다.

28번에서 1번선지를 골라 틀리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연습이 덜 됐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는 실제로 풀 때 그냥 의도적으로 변형한 시어가 있다는걸 보고 맞다고 하고 넘겼습니다.

그럼 5번선지 보겠습니다.

⑤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의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가 충돌하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다시 한번 사실적 판단에 대한 정의를 복기해보면

‘사실처럼 표현한 부분에 대한 판단’ 이였잖아요.

고로 5번선지에서 사실적 판단에 해당하는 부분은

< 말줄임표를 사용하여 시적 대상의 정적인 상태와 동적인 상태가 충돌하는 상황 >  
입니다.

여기서 선지 판단에 애를 먹으신 분들은 아마도.. 시에서 말줄임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한 해석이 힘드셔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말줄임표를 사용한 부분을 떼와보면

[호접인 양 사뭇이 춤을 추라 아미를 숙이고.....]

아미가 뭔진 모르겠는데 아미를 숙이고 춤추래요  
정적인 상태가 어딴습니까?

어딴냐고

어딴냐고 물었다



뻐—악

고로, 답은 5번입니다.

다음은 44번,45번입니다 지문먼저 볼게요

<보 기>

교훈적 내용의 시조에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특징적인 표현 전략이 있다. 우선 윤리적 덕목을 실천해야 하는 인물을 화자로 설정하여 대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비유나 상징, 유추, 다른 인물이나 사물과의 대비 등을 통해 화자가 개인 윤리는 물론 가정과 사회의 윤리를 실천하는 주체로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근데 (가) 지문에 대한 보기가 있으니깐, 먼저 봐줘야겠죠?

그냥 속속 읽으면서 뭘 얻어가시면 되냐면요

해석적 측면 말고 '시에 이렇게 있어용~' 하시는 부분 얻어가시면 됩니다

윤리적 덕목을 실천해야하는 인물을 화자로 설정해서 대화형식을 취하고

비유, 상징, 유추, 대비를 통해 개인윤리, 사회윤리를 실천하는 주체로서 추구해야하는 가치를 정당화 한다구 합니다. 그렇구나.. 하고 지문으로 갑시다

(가)

사람 사람마다 이 말삼 드러사라  
이 말삼 아니면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  
이 말삼 잇디 말고 배우고야 마로리이다 <제1수>

형님 자신 젖을 내 조처 먹나이다  
어와 우리 아우야 어마님 너 사랑이야  
형제(兄弟)가 불화(不和)하면 개돼지라 하리라 <제5수>

아바님 날 나호시고 어마님 날 기르시니  
부모(父母)곤 아니시면 내 몸이 업실랏다  
이 덕(德)을 갓흐려 하니 하늘 가이 업스랏다 <제2수>

늙은이는 부모 같고 어른은 형 같으니  
같은데 불공(不恭)하면 어디가 다르고  
나이가 많으시거든 절하고야 마로리이다 <제6수>

- 주세붕, 『오윤가』 -

종과 주인과를 뉘라서 삼기신고  
별과 개미가 이 뜻을 문져 아니  
한 마암에 두 뜻 업시 속이지나 마음사이다 <제3수>

지아비 발 갈라 간 데 밥고리 이고 가  
반상을 들오되 눈썹에 마초이다  
진실로 고마오시니 손이시나 다르실가 <제4수>

시는 그냥 무슨소린지 몰라도, 최선을 다해 읽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1수>

내 말 안들으면 병헌~~ 이 말씀 들어라

<제2수>

엄마 짱짱! 부모님 짱짱

<제3수>(존나짚림)

무슨소린지 잘 모르겠는데 한 마음에 두 뜻 없이 속이지 말재요.. 종과 주인 같은 말도 나오는걸 보니 종과 주인간의 관계에서 말하고있는듯?

<제4수>

(지아비=남편) 밭 가는 곳에 밥 들고가서.. 뭐 어찌구저찌구 고마워한다? 뭐지?

<제5수>

이해가 안되지만.. 형제가 불화하면 개돼지다.. 는 얻어갑시다

<제6수>

나이가 많으면 절을 한다고 합니다. 착하네

문제 나와라

44.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교훈적 내용의 시조에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특징적인 표현 전략이 있다. 우선 윤리적 덕목을 실천해야 하는 인물을 화자로 설정하여 대화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비유나 상징, 유추, 다른 인물이나 사물과의 대비 등을 통해 화자가 개인 윤리는 물론 가정과 사회의 윤리를 실천하는 주체로서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 ① <제3수>에서는 '벌과 개미'의 생태로부터 윤리적 실천의 주체가 추구해야 하는 가치를 유추하고 있다.
- ② <제4수>에서는 화자로 내세운 '지아비'와 '지어미'의 문답 방식을 통해 아내가 추구해야 할 윤리적 가치를 정당화하고 있다.
- ③ <제5수>에서 어머니의 '젖'은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형님'과 '아우'가 이를 화제로 삼아 대화를 나누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④ <제5수>의 '개돼지'는 <제1수>의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의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는 윤리적 주체와 대비되고 있다.
- ⑤ <제6수>에서 '부모'와 '형'은, <제2수>의 '부모'와 <제5수>의 '형님'과는 달리, '늙은이'와 '어른'에 빗대어져 쓰임으로써 사회 윤리가 가정 윤리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압

1번

사실적 판단이 들어갈 부분은 딱히 없구요,

벌과 개미가 이 뜻을 묻져 아니 한 마암애 두뜻 없이 속이지나 맙시다~ ㅎㅎ  
라고 지문에서 말했습니다.

뉘앙스가 벌과 개미가 요로요로 하니깐 ==> 우리도 요로요로 하자~  
라는 뉘앙스니깐 그냥 맞는 선지임을 알수있죠?

여기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고전시가 해석이 부족하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ㅎㅎ.. 고전시가의 왕도는 그냥 많이 접하고 외우는거라고 생각해요

2번

사실적 판단에 해당하는 부분은 뭘까요

< 화자로 내세운 '시아비'와 지어미의 문답방식 > 입니다!

틀렸죠?

여기선, 지아비가 '남편' 이라는 단어라는 상식이 없으셨어도

시를 보시면, <제4수>에서 누군가가 지아비를 위해 무엇무엇을 하고 있는데,

선지에서는 '시아비'가 화자라고 하고있습니다!

고로 틀렸습니다.

또한 문답방식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틀렸구요.

3번

사실적 판단에 해당하는 부분은

< 어머니의 '젖'은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표현 >

< '형님'과 '아우'가 이를 화제로 삼아 대화>

입니다.

저 젖이 누구꺼진 모르겠지만, (내꺼가?ㅎ 녀담~)

앞뒤 내용 보시면 어머니 얘기가 나오고, 시의 전체적인 흐름도 지켜야할 덕목같은걸 얘기하고있으니 어머니의 젖을 말하는거겠군.. 이라고 생각해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어머니의 '젖'은 어머니의 사랑을 상징하는 표현이란거 받아들이실 수 있죠?

전체적인 흐름상 너무 적합하니깐요.

또 '형님'과 '아우'가 이를 화제로 삼아 대화한다는건 시를 읽으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뭐 해석적 판단이 들어갈 부분이 없어서 그냥 선지에 대한 판단이 끝났네요? 참

4번

사실적 판단에 해당하는 부분은

< <제5수>의 '개돼지'는 <제1수>의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의 의미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맞죠?

개돼지도 (-)의 이미지고 사람이라도 사람 아니니 (-) 의 이미지니깐 맞다고 해줄 수 있겠습니까!

또 <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는 윤리적 주체 >

는 보기 보시면 그냥 맞다는걸 압니다.

그리고 해석적 판단에 해당하는 부분은 위의 사실적 판단에 해당하는 둘이 서로 대비된다.

맞죠? 머리 굴릴 것 도 없습니다.

5번은 스스로 해보세요. [근거는 '명확'하되 판단은 '뭉뚱그려']

다음은 45번입니다. 들어가기전에 (나) 시 보고 갈게요

(나)

나는 집이 가난해서 말이 없기 때문에 간혹 남의 말을 빌려서 댔다. 그런데 노둔하고 야원 말을 얻었을 경우에는 일이 아무리 급해도 감히 채찍을 대지 못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질 것처럼 전전공공하기 일쑤요, 개천이나 도랑이라도 만나면 또 말에서 내리곤 한다. 그래서 후회하는 일이 거의 없다. 반면에 발굽이 높고 키가 쫘긋하며 잘 달리는 준마를 얻었을 경우에는 의기양양하여 방자하게 채찍을 갈기도 하고 고삐를 놓기도 하면서 언덕과 골짜기를 모두 평지로 간주한 채 매우 유쾌하게 질주하곤 한다. 그러나 간혹 위험하게 말에서 떨어지는 환란을 면하지 못한다.

아,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어찌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뒤바뀔 수가 있단 말인가. 남의 물건을 빌려서 잠깐 동안 쓸 때에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하물며 진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그렇긴 하지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남에게 빌리지 않은 것이 또 뭐가 있다고 하겠는가. 임금은 백성으로부터 힘을 빌려서 존귀하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요, 신하는 임금으로부터 권세를 빌려서 총애를 받고 귀한 신분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식은 어버이에게서, 지어미는 지아버에게서, 비복(婢僕)은 주인에게서 각각 빌리는 것이 또한 심하고도 많은데, 대부분 자기가 본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기만 할 뿐 끝내 돌이켜 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 어찌 미혹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다가 혹 잠깐 사이에 그동안 빌렸던 것을 돌려주는 일이 생기게 되면, 만방(萬邦)의 임금도 독부(獨夫)가 되고 백승(百乘)의 대부(大夫)도 고신(孤臣)이 되는 법인데, 더군다나 미천한 자의 경우야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맹자(孟子)가 말하기를 “오래도록 차용하고서 반환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자기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이 말을 접하고서 느껴지는 바가 있기에, 『차마설』을 지어서 그 뜻을 부연해 보노라.

-이곡, 『차마설』-

그냥 열심히 읽어주시면 됩니다.

하고픈 말이 뭐지? 만 캐치해주세요.

45. (나)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노둔하고 야원 말'을 빌리는 경우 '전전공공'하다가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후회하게 된다고 여기고 있다.
- ② '나'는 '준마'를 빌려 탈 때의 '의기양양'한 감정이 그것을 소유할 때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천한 사람들을 '미혹'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④ '나'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권력이 빌린 것임을 돌아보는 '임금'의 모습을 '독부'로 표현하고 있다.
- ⑤ '나'는 '맹자'의 '이 말'에서, 빌린 것을 소유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대한 문제의식을 떠올리고 있다.

1,2,3번은 넘길게요! 그냥 눈운동 문제라

4번

사실적 판단에 해당하는 부분은

<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권력이 빌린 것임을 돌아보는 '임금'의 모습 >  
입니다.

지문에서 찾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고로 틀린선지

5번

선지 자체가 사실적 판단에 해당하네요.

지문의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내가 이 말을 접하고서 느껴지는 바가 있기에, 『차마설』을 지어서 그 뜻을 부연해 보겠3.  
라고 하고있습니다.

딱 저 문장만 보고선 5번 선지가 맞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들지만,

지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꾸준히 빌린 것을 소유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못마땅히 여기는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 역전되는 부분도 없었으니, 화자가 하려는 말도 이와 같겠다.

하고 정답 체크 딱! 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선지판단을 어떻게 했었는지, 열심히 열심히 복기해가며 작성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충분히 고민하셨는데도 애매하다고 생각드는 선지는 댓글로 질문해주세요.

다시한번 말하지만 문학에서 해석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는 명확히, 판단은 뭉뚱그려서!]**

입니다. 잘 기억해주시고, 제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그럼 다들 문학킹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